

방통위,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

-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업자 대상 현장조사
- 국민들께 악성 스팸 의심문자 열람 주의 및 신속 신고 당부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‘방통위’)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, 원장 이상중)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.

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,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 (40.6%)으로 증가했다. 특히 ▲주식투자 ▲도박 ▲스미싱 문자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※ 6.1.~6.17. 스팸신고 2,796만건(5월 동기 1,988만건)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.6% 증가

이에 따라,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6.20.(목)부터 실시할 계획이다.

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·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,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, 발신번호의 거짓표시,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.

한편,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▲출처가 불분명한 문자(SMS)의 인터넷

주소(URL)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▲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 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▲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당부했다.

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▲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▲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▲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(www.boho.or.kr)를 참고하여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.

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“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,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”이라며 “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말했다. 아울러 “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불법스팸문자 예시
2. 스팸신고 방법

담당 부서	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	책임자	과 장	고남현 (02-2110-15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애 (02-2110-1522)
	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	책임자	단 장	정원기 (061-820-1840)
		담당자	팀 장	안정은 (061-820-141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[붙임1] 불법스팸문자 예시



[붙임2] 스팸신고 방법

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하기 *삼성 갤럭시 단말기 기준

- 스팸메시지 선택 후 "스팸으로 신고" 클릭
- 메시지 선택
- 확인 선택

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하기 *삼성 갤럭시 단말기 기준

- 전화번호 선택 후 상세정보 선택
- 오른쪽 하단 점 3개 선택
- 스팸으로 신고 -> 확인 선택

휴대전화 특정번호 차단하기 *삼성 갤럭시 단말기 기준

- 문자메시지 선택 후 상단 점 3개 선택
- 설정 선택 후 전화번호 및 스팸차단 선택
- 수신차단 -> 번호 입력 -> 플러스(+) 버튼 선택

'불법스팸 간편신고 앱'으로 신고하기

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란?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앱

다운로드 링크

안드로이드

- "문자스팸 신고하기" 클릭 후 문자 선택
- "음성스팸 신고하기" 클릭 후 통화기록 선택

아이폰 *아이폰의 경우 문자 내용 확인 필수

- "신고하기" 탭에서 스팸 유형 입력
- 캡처한 스팸문자 이미지 첨부